



한울림 교회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맡은이

찬 양* 이몸에 무슨 소망있나 다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보혈을 지나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마태복음 28:16-20 다같이

말씀선포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5월 첫째 주일(5/3)은 성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포도음을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성찬식을 진행할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로, 새벽기도회는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송봉익 권사님이 지난 4월 20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5.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예배당 건축이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7.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T.S. 엘리엇의 ‘황무지’의 첫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4월에 대한 단상은 금년에도 마치 예언처럼 맞아 떨어진 듯 합니다. 6.25동란 전후 세대로 살면서 겪은 가장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파괴는 4월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전염으로 인한 투병자들의 대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자의 속출은 미국 전역, 특히 뉴욕을 대혼란에 빠트렸습니다. 테러와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통계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잔인한 4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누렸던 일상적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이 무너진 세상을 살다 보니 지금까지 누렸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비범한 것이었는지,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평소에 가정도, 직장도, 삶의 자리도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재정 관리를 잘 하고, 인간 관계도 잘 가져 안정된 삶이 되도록 애쓰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복된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면서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장소와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라면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702,342